

교과부 '학폭 기재 거부' 전북교육청 특감

광주교육청에도 불똥 튕까

“보류나 기재나” 곧 최종 입장 정리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라는 정부 지침을 거부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이 특별감사 대상이 되면서 광주교육청의 최종 입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전북과 달리 현재 가해 사실의 기재는 보류한 상태로, 22일 안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0일 보도자료에서 “전북교육청에 이날 오후까지 지침 준수여부를 통보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특별감사가 불가피해졌다”며 “21일까지 미

준수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 즉시 특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특감에서 기재 거부에 관여한 전북교육청과 산하 학교의 관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각 학교에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교과부 지침을 따르게 할 방침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을 일체 보류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들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만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경기·강원 등 3개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도 21일까지 입장을 기다린 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교육청은 국가인권위와 교과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탓에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일선 학교에 폭력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달했다가 일단 이행 보류를 지시해놓은 상태다. 이달 초 국가인권위에서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 보존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 만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 시·도교육청에 폭력사실을 기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와 교과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따를 지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22일 안으로 시교육청의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등 일부 교육청들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지침 거부·보류 조치는 이미 16일 수시모집 접수가 시작된 대학 입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많은 대학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 전형에 반영하기로 한 상황에서 지역에 따라 학생부 기록 여부가 다르다면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는 우려가 많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 양식장 일 힘들어”

40대 신안 섬서 탈출하다 9시간 표류

섬 양식장의 고된 일을 견디지 못하고 바다를 헤엄쳐 탈출을 시도하던 40대가 조류에 표류하다가 9시간 만에 육지에 도착해 경찰이 경위를 조사중이다.

목포해양경찰은 20일 새벽 1시 15분께 모 육군부대로부터 무안군 해제면 대서리 선착장에서 잠모(41)씨가 양식장 부표를 잡고 때려려 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정 3척과 112구조대, 헬기 1대 등을 동원해 인근에 대한 수색에 나섰다.

장씨는 2시간30여분께를 더 표류하다가 새벽 3시50분께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선착장으로 스스로 헤엄쳐 나왔다. 발견 당시 장

씨는 비닐봉지에 쌓인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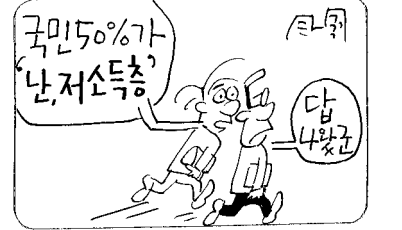
신안군 어의도 한 김 양식장에서 일하던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어의도에서 700m가량 떨어진 인근 섬을 향해 헤엄쳤다가 조류에 휩쓸려 표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경찰에서 “보름 전에 김 양식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최근 일도 힘들고 주인과 사이도 안 좋아져서 인근 섬까지 헤엄쳐 가서 육지로 나갈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를 목포의 가족들에게 인계하고, 양식장 주인,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가혹행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나원침 (8635) 김종두



이병헌, 강병규 고소

배우 이병헌이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병헌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병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에이펙스 측은 “강병규는 이병헌의 열애 사실이 공개된 19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병헌을 ‘이XX’라는 단어로 지칭했고 ‘조만간 임신 소식이 들릴 것이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이병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연협뉴스

도심에 황구렁이 출몰 소동

○광주 도심에 황구렁이가 나타나 영무새 2마리를 잡아먹는 바람에 119구조대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20일 광주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광산구 신장동 한 구공장 공터에 있는 새장에 1.5m 길이의 황구렁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구조대가 잠비를 이용해 포획한 뒤 인근 야산에 방사했다는 것.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구렁이가 새장 속으로 들어가 완강 영무새 2마리를 삼킨 뒤, 배가 불룩해져 다시 새장 밖으로 나오지 못한 탓에 쉽게 잡았다”고 설명. /최승철기자 srchoi@

보문고 또 57명 전학 신청

자사고 사태 여파 대부분 1학년... 신청 학생 더 늘 듯

광주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요청했던 보문고가 현행대로 학교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학생들의 전학 사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에 마련된 일반계고 전입학 사무실에 이날 오후 6시까지 보문고 재학생 57명이 전학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1학년으로, 접수 첫날 1학년 재학생 222명 중 26%가 전학의사를 밝힌 셈이다.

〈관련 기사 17면〉

이는 시 교육청의 최근 조사에서 전학의사를 표명한 40명을 상회하는 수치다. 시교육청은 21일 전학신청을 마감하면 전학하려는 학생 숫자

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유지하기로 하고 각종 지원대책도 합의했는데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애초 선착순으로 접수해 순서에 따라 원하는 학교에 학생을 배정할 방침이었지만 전학 희망자가 많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접수방식을 바꿨다.

시교육청은 21일까지 이틀간 전학신청을 받아 주거나 근거리 원칙에 따라 22일 학교를 추첨 배정할 방침이다. 보문고는 무더기 전학사태가 현실화하면 학교 운영을 학생 납부금

에 의존하는 자사고 특성상 재정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보문고는 “2010년 자사고 지정 당시 전입 교육감이 학교의 과원교사를 공립학교로 특채해 줄 것을 약속했으나 현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며 최근 자사고 지정 취소,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시 교육청과 학교에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양측이 협의에 나서 지난 16일 자율형 사립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문고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0여명의 학생이 전학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군장비 전시회

20일 오전 광주 북구청 로비에서 국군이 사용하는 군장비 전시회가 열렸다. 어린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소총에 대한 군인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뇌물 고리원전 간부 징역 4년

울산지법은 뇌물공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간부 김모(44)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부터 1년 동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고 또 다

른 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기소됐다.

또 김씨는 인사에 좋은 평가를 주거나 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를 묵인해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상사에게 총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직접 납품업체를 만들어 편의를 봐달라면서 한수원 간

부에 980만원 상당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원자력 발전 설비의 유지와 관리업무는 조금의 잘못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특히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은 심지어 납품업체를 직접 설립해 뇌물을 공여하면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협뉴스

병원서 만난 여중생 성폭행

북부경찰, 20대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20일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대학생

최모(20)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8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정모(14)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우유증을 앓던 최씨와 정양은 지난 3월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알게 됐으며, 퇴원 이후 연락을 하고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02-454-7722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약점 서비스등록번호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24시간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